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12. 17.(금) 조간 *인터넷 2021. 12. 16.(화) 15:00 이후 / 총 6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	과 장 이지영 사무관 이정미	044-202-7440 044-202-7444
	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	과 장 이부용 사무관 정다비	044-202-7432 044-202-7436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청년 취업준비생과의 대화

- 기업의 최근 채용 트렌드, 청년고용정책 소개 및 취업 준비생의 애로사항 청취 -

1.「숭실대 청년 취업준비생 간담회」 관련

□ **고용노동부**(장관 안경덕)는 12.16(목) 숭실대학교에서 「청년 취업준비생 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

○ 이번 간담회는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기업의 최근 채용 트렌드 및 '22년도 청년고용정책예산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취업준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여, 향후 정책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.

○ 특히 안경덕 장관은 '21년 KDT(K-Digital Training), 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고용응원프로젝트 등 그간 청년고용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온 내용을 소개하고, '22년 청년고용정책 방향도 적극 설명하였다.

> ○ **KDT**: 105개 훈련기관 231개 훈련과정 선정(18,546명 규모) 9,799명 훈련 실시
> ○ **국민취업지원제도**: 청년참여자수 250,200명(I유형 201,229명, II유형 48,971명)
> ○ **청년고용응원프로젝트**: 삼성전자, 포스코, SK하이닉스, 롯데지주, 삼양식품, 광주과기원 컨소시엄, KT, SK수펙스, 스타벅스, KT&G, 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

□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발표된 「취업준비생 애로 경감방안」의 **"전문 평가위원과의 모의면접 및 맞춤형 피드백"**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.

○ 동 프로그램은 **역량있는 직무전문가**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모의면접 뿐만 아니라 **개인별 컨설팅을 제공**하는 것으로, 면접을 위해 사교육까지 이용해 부담이 크다는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 **내년부터 신설**된다.

> 「취업준비생 애로경감방안」(10.28) 中 "공공기관 채용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직무전문가가 참여한 실전형 모의 면접 신설('22~)
> - '22년 '청년 구직자 취업-코칭 솔루션 지원'(3억원), NCS홈페이지(ncs.go.kr) 및 온라인 청년센터(www.youthcenter.go.kr) 등에서 신청 가능('22~)

○ 이번 모의면접에 참여한 신○○ 학생은 "실제와 같은 면접을 통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할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. 특히 역량 있으신 면접관분들이 나를 위한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.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"라고 밝혔다.

2.「2022년도 청년고용정책 예산」 관련

□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**2020~2021년간 일자리 예산 72조원을 투입**하여 **고용안정에 총력***을 기울였다.

* 고용유지지원금('20년 77.3만명, '21년(~11월) 33.0만명), 특고·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 지원금('20~'21년 179.2만명), 공공·민간일자리 창출('20년 158.5만개, '21년(~10월) 139.0만개)

□ 그 결과, **통계청의 11월 경제활동인구조사**를 살펴보면 **8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**되었다.

○ 특히 11월 들어 **청년 고용률**이 전년 대비 2.7%p 증가한 45.1%를 기록하여 **'04년 이후 최고 수준**이고,

-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인 **상용직 일자리**와 **제조업, 전문과학기술업, 정보통신업** 등에서 **취업자가 증가**한 점이 **긍정적**이다.

* 11월 취업자 증감(만명, 전년비): (전체) 55.3 (상용직) 61.1 (임시일용직) -6.9 (비임금근로자) 1.1 (정보통신) 10.6 (전문과학) 8.7 (제조업) 5.1

○ 다만, 취업을 준비하는 **청년들이 이와 같은 고용지표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**는 의견이 많다.

□ 이에 정부는 **2022년도 고용노동부 청년 관련 사업 예산**을 **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, 신산업 인력양성,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**에 초점을 두고 **편성**하였다.

○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'22년 **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4조 4,175억원 규모로, 올해 본예산 4조 2,857억원보다 1,318억원(3.1%) 증액**되었다.

❖ **(주요증액사업)**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(+347억원), 청년일자리창출지원(+752억원), K-Digital Training, K-Digital Credit 등 인력양성(+2,208억원),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(+982억원) 등

□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민간 기업의 청년 고용창출 및 다양한 취업기회 확대

○ 중소기업(미래 유망기업, 5인 이상)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애로 청년 **14만명** 대상, '**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**'을 **신설**한다

* <'22> 0.5조원/5인이상 중소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시 月 80만원*12개월 지원

○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**청년내일채움공제**는 **제도 개편**을 통해 기업자부담을 조정하고, 7만명을 지원한다

* <'21> 1.4조원, 10만명 → <'22> 1.3조원, 7만명

** (자부담률) ▲30~49人: 0 → 20% ▲50~199人: 20 → 50% ▲200人이상: 20 → 100%

○ 청년 직무훈련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**민-관 협업 중심의 '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'**을 **신설 추진**한다.<'22> 170억원

*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운영하는 직무훈련·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·선정하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컨설팅 등 지원

○ 청년들의 해외취업 선호·개선된 해외 취업여건을 고려하여, **해외취업**사업 규모를 **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**한다

* '21년 526억(7,682명) → '22년 551억(7,990명)

2. 미래 대비 신산업 핵심 인재양성 강화

○ **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**을 확대하고(대학 4→3학년), 현장 수요가 높은 **디지털·신기술 분야의 실무인재 양성 지원사업인 K-Digital Training과 K-Digital Credit 사업을 확대**한다

* K-Digital Training 1.7만명 → 2.85만명, K-Digital Credit 4만명→ 6만명

○ 폴리텍(공공), 특성화고에 **전통산업학과(자동차, 기계 등)를 인공지능(AI)분야와 융합**하는 **신기술 인력양성사업 지원을 강화한다**

* 폴리텍, AI+x 학과 신설(5개), 탄소중립기술인력 양성학과 신설(5개)

3. "진입준비 청년" 취업 역량 및 일경험 지원 강화

○ **국민취업지원제도(Ⅰ) 청년특례** 지원대상을 **확대**(10만명→17만명)한다

○ **청년도전 지원 사업**은 일부지역(인천, 부산 등 14개)에서 시행 → **전국으로 대상(자립준비청년)·인원 확대(5천명 →7천명)**하고 지역 청년센터와 협력하여 **구직단념 청년(니트)의 구직의욕을 고취**한다

○ **중소기업 등 민간부문**에 채용단계별 **평가도구 개발*·보급, 능력중심 채용 모델** 확산**을 통해 **청년구직자가 효율적으로 직무능력 평가에 대비**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

* 전체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소분류 257개 채용분야 중, 107개 채용분야 개발('21년말)

** 채용모델 추가 개발(개발4개, 고도화6개), 중소기업 200개 채용 컨설팅 지원

○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**실제 취업·직무중심 역량을 준비**할 수 있도록 **청년 구직자 취업-코칭 솔루션 지원사업**을 **신설**한다

* ①능력중심 직무 취업준비 방향 설계, ②블라인드 채용관련 코칭-멘토링 및 모의면접, ③기업의 인사담당자 오픈 채팅방 운영 등 지원그랭

○ 우수 중소·중견기업에서 직무과제 부여 후, **현직자 피드백**을 제공하는 **「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」을 신설** 추진한다('22~, 2천명)

* 최대 2주 미니인턴 실습, 모의면접-실전 면접을 통한 채용 연계 프로그램으로 개편

4.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 보장

○ 대학일자리센터를 **'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'로 개편**하여 **취업지원 서비스 대상**(재학생→졸업후 2년내 미취업자) 및 **기능을 확대**한다.

* <'22> 325억원, 총 100개소 운영

○ **온라인 청년센터 기능을 개편**하여 급변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**실시간으로 통합 제공(Open API 구축)**한다

* <'22> 41억원, 맞춤형 청년 정책·공간 정보 제공, 온·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운영

** 오픈(OPEN) API 서비스 구축 → 정보수집·최신화, 부처·지자체 간 정보 공유·연계

※ 위 청년고용정책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고용부 대표전화 1350, 검색 및 상담은 온라인청년센터(www.youthcenter.go.kr)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□ **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**은 "대학 현장에서 취업준비생의 생생한 고민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"며

○ "모의면접을 참관해 학생들의 열의에 찬 눈빛을 보니 꿈을 향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고, 면접관분들께서 주신 따뜻한 조언들이 취업 성공에 있어 학생들에게 값진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"고 밝혔다

○ 또한 내년도 청년고용 사업을 소개하면서 "**내년도 청년정책예산이 4.4조원 규모로 확대**된 만큼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**청년들의 의견을 반영**하여 **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**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"고 강조했다

<붙임> 숭실대 청년 취업준비생 간담회 개요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정다비 사무관(취업준비생 애로 경감방안 관련, ☎044-202-7436), 청년고용기획과 이정미 사무관(숭실대 청년 취업준비생 간담회 관련, ☎044-202-7444)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**숭실대 청년 취업준비생 간담회 개요**

□ **(일시·장소)** '21.12.16(목) 15:00~16:10, 숭실대학교 베어드홀/진로취업센터

□ **(참석)** **장관**, 숭실대 총장, 진로취업센터장* 등 교내 취업지원 관계자, 청년 취업준비생 등

* (숭실대 진로취업센터) 진로상담, 취·창업 지원 프로그램(직무전문가 양성교육, 멘토링, 캠퍼스 리쿠르팅 등), 현장실습, 산학협력 지원 및 심리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

□ **세부 진행순서** ※장관 인사말씀까지 공개

(진행: 조승호 학생처장)

시간	내용	비고
15:00~15:05(05')	▪ **개회사**	총장
15:05~15:10(05')	▪ **인사 말씀** - 기업의 최근 채용 트렌드 소개 *「청년채용기업 인식조사 결과」 활용	장관
15:10~15:15(05')	▪ **교내 취업 지원프로그램 및 산학협력 현황 발표**	숭실대
15:15~15:20(05')	▪ **취업지원제도 및 온라인 청년센터 소개** - 청년지원정책 소개 리플릿 활용, 홈페이지 시연	청년고용기획과장
15:20~15:45(25')	▪ **취업준비생과의 대화**	장관, 총장 등
15:45~15:50(05')	이동 (회의실 → 진로취업센터)	도보(5분)
15:50~16:10(20')	▪ **모의 면접(청년 2명)** * 면접관 2명(직무 전문가)의 맞춤형 피드백 실시	장관, 총장 참관